

보도시점 2024. 4. 23.(화) 15:00 배포 2024. 4. 23.(화) 08:30

“기업고충 현장 속으로~” 『‘백신 특구’ 화순생물의약품산업단지 편』

- 국민권익위, 전남 화순생물의약품산업단지에서 기업고충 현장 회의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화순생물의약품산업단지 기업인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전라남도 화순군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고충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매월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서천 특화시장 상인, 경산 경제자유지구 입주기업, 장애인 기업인들의 고충 30여 건을 접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내 복지 및 편의시설 확충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임직원 대상 ‘만원 임대주택’ 지원 기준 완화 ▲근로자 기숙사 등 숙소지원 ▲광주-화순 간 교통인프라 확충 ▲단지 내 어린이집 설립 등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즉시 처리가 어렵거나 추가 검토, 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했다.

- 김태규 부위원장은 “화순생물의약품산업단지는 백신과 생물의약품의 연구개발부터 임상, 생산까지 원스톱 지원 기반을 갖춘 백신 특구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어 “특구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긴급고충조사과	책임자	과장	정동률 (044-200-7831)
		담당자	사무관	이미라 (044-200-7832)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